

# ‘한인 변호사협회’ 첫모임 “법대생들에 경험 전수”

최근 정립한 샌디에이고 한인변호사협회(KABA-SD)가 지역 한인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직 변호사 83명을 비롯해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이고 등 지역의 주요 법대에 재학 중인 학생 등 모두 120명 정도가 등록해 있는 이 단체는 이미 3개월 전에 발족했는데 지난 13일에는 다운타운에서 첫 공식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가 커뮤니티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회원 대다수가 현직 변호사와 장래 변호사를 꿈꾸는 법대생들인 1.5세 및 2세들로 구성된 탓에 있기 때문이다.

1.5세나 2세가 주축이 된 단체로서는 1990년대 초반 수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한인 전문인협회(KAPA) 이후 처음 발족된 셈이다.

KABA-SD는 가장 큰 장립목적 중 하나로 대커뮤니티 봉사를 내걸고 있다.

제니 유(한국어를 정화) 초대회장은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성장세에 따라 한국계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진단하고 “KABA-SD는 이 같은 지역 사회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한인 변호사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정보교환과 함께 친선을 다지는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KABA-SD는 변호사 지망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KABA-SD의 보드 멤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5번째가 테미 류 정 판사, 그 오른쪽 뒤가 제니 유 KABA-SD 회장.

영할 계획으로 있다. 그 중 하나가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현직에 있는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 법대 재학생들을 위해 조언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13일 열린 첫 공식모임에는 거주 최초의 한국계 여성판사인 테미 류 정 판사가 초청돼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참석한 젊은 변호사

사법 법대생들과 함께 법조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와 KABA-SD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정원기자



그레이스 리후보(사진 가운데)가 자신의 경험을 입증하는 서류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두회 리후보 후원회장, 리후보, 이용일 후보, 조광세 이후보 후원회장.

## 선거 제대로 치러질까

제29대 샌디에이고 한인회장 선거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제대로 치러질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

한쪽은 계획대로 경선을 치르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쪽은 상대방 후보의 자격여부를 법정에 서 평가하겠다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한인회관에서 양 후보와 양 후보의 후원회장을 불러 선거 일정 마련에 가장 큰 이

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후보자격을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레이스 리 후보의 후원회장으로는 구두회 전한후회장이 그리고 이용일 후보측 후원회장으로는 조광세 전한인회장이 나왔으며 류재길 변호사가 법률자문 및 증인역할을 위해 참석했다.

정성오 선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관위에서는 양측이 제기한 상대방의 경력·학력에 의혹에 대해 이 정도면 됐다고 유관해서

를 내려 인정하려 했으나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선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양측의 견해를 듣고 조율을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후보 자격싸고 법정싸움 가능성 “일정 연기 냉각기 갖자” 의견도

리후보는 먼저 “이후보는 24일 까지 내 경력에 대해 제기한 의문을 해명하라고 해놓고도 17일에 이어 21일에도 일간지 광고를 통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후보는 침구사(acupuncturist) 자격을 갖고 있어 한의사라는 직책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더구나 자격이 정지된(in active) 상태에 있어 침구사 자격도 없는데 한의사로 광고하는 것은 기만이고 진실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정에 가

서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보는 “리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하는 추가자료를 선관위에 보냈다고 했으나 선관위로 부터 지금까지 이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15일 선관위원장에게 받은 서류 상 나타난 리후보의 경력사항이 단지 미흡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면서 “가주에서 한의사 자격을 ‘Acupuncturist’라고 하며 LA에 있는 한의사협회에서도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한의사라고 한다”고 말하고 “in active”의 경우는 현재 개업을 하지 않았고 1년에 한번씩 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후보의 조광세 후원회장은 “모든 것을 다 덮고 투표로 가자”고 주장했으며 반면 리후보의 구두회 후원회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선거일정을 무기 연기에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다. 주영성 기자

### 교계소식

####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담임 김종민 목사)가 다음달 2일(일) 오후 2시30분 새 예배처소에서 ‘창립예배 및 성전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미라메사 지역에 최근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한 이 교회는 이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성령·선교의 공동체 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선포하게 된다.

▷ 문의: (858)776-956

#### 연합감리교 내적치유성회

샌디에이고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정소영 목사)는 오는 29일(목)-12월2일(일) 4일간 이 교회(3520 Mt. Acadia Blvd., S. D.) 성전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내적치유성회’를 갖는다.

이번 성회의 강사로는 은혜의 강연합감리교회 담임인 우광성 목사가 초청됐다.

▷ 문의: (858)569-4069

#### ‘칸타모레’ 정기연주회

칸타모레 합창단은 다음달 8일(토) 오후 7시 세인트 마크스 연합감리교회(3502 Clairemont Dr., S.D.) 성전에서 ‘제10 정기연주회(크리스마스 연주회)’를 갖는다.

▷ 문의: (858)740-4919

### 나의 비즈니스

#### 스왑밋 운영 25년 경력

##### 샌디에이고 마켓 플레이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대표적 인도어 스왑밋인 팜마트가 새 경영주를 맞아 상호를 ‘샌디에이고 마켓 플레이스’(San Diego Market Place)로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 인도어 스왑밋을 최근 인수한 사람은 차종규 씨로 미주 스왑밋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올해로 인도어 스왑밋과 인연을 맺은 지 25년 정도가 된 차 사장은 오렌지카운티 에너하임 마켓 플레이스를 설립했을 뿐 아니라 에리조나와 피닉스 마켓 플레이스도 창업했고 현재는 라스 베이거스에서 상업 중인 비바 인도어 스왑밋도 운영하고 있다.

수년 전 경영권을 넘겼지만 샌디에이고 북부카운티에 있는 오션사이드 마켓 플레이스도 사실은 차 사장의 작품이다. 오랜 인도어 스왑밋 운영 경험 때문인지 차 사장의 경영관은 매우 확고하다.

“인도어 스왑밋의 경영주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입주상인

들의 비즈니스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상인이 잘 되지 않고서 경영주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편안하게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주변 및 내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달 이 곳을 인수한 차 사장이 처음으로 손을 댄 것은 바로 외부 단장이었다. 내부 시설도 앞으로 차차 고객들은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입주상인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변 흑인 커뮤니티와의 관계개선과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생각이다.

샌디에이고 마켓 플레이스는 현재 일부 빈 상가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걸쳐 입주상인을 모집하고 있다.

▷ 주소: 1755 Euclid Ave., S.D.  
▷ 전화: (619)527-7157



샌디에이고 마켓 플레이스의 주요 경영진들. 왼쪽부터 이양우 총매너저, 차종규 사장, 이경희 회계 총책임자, 김정영 CPA.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내적치유성회 '07

일시: 2007년 11월 29일(목) - 12월 2일(주)

구분	11월 29일(목)	11월 30일(금)	12월 1일(토)	2일(주일 1, 2부)
주제	인부권 회복의 기초	사랑과 삶의 기초 (5시 25분) (교향 13곡)	가계의 자유 (5시 25분) (송 20:5-6)	하나님의 성령하에 (1부 6시, 3부 11시) (장 5:17-21)
지역	온누리회 자유교회 (7시 30분) (미 12:15-16)	광주교회 (7시 30분) (장 4:5)	행복한 가정의 기초 (7시 30분) (장 2:18-28)	오부목감 (7시) (8:30) 새마나

우광성 목사 (한국의 강 연합감리교회 담임)  
- 목회자로서 신학박사, D. Min (내적치유 연구)  
- 미주 감리교 신학교 강사

정소년 및 어린이 부흥기도 합체합니다.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저녁 7시 30분

샌디에이고 한인연합감리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an Diego  
3520 Mt. Acadia Blvd., San Diego, CA 92111  
Tel (858)569-4069, 569-4087

## 샌디에이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담임: 정소영 목사

영어목회 담당: 유성수 목사

청소년 담당: 남상신 목사

주일학교 담당: 이은주 전도사

행정 담당: 최현성 목사